

전북도, 내년 예산 6조4052억원 편성

전년대비 5816억원 증가... 도의회에 제출
지방선거·전국체전 등 재정적 지원에 중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570억원 반영

전북도는 지난 10일 2018년도 예산안으로 6조4,052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은 ▲총 규모는 2017년 예산 5조 8,236억원 보다 5,816억원(10.0%)이 증액된 6조4,052억원이다. ▲일반회계는 5조1,275억원으로 전년대비 4,358억원(9.3%) 증가 ▲특별회계 4,905억원으로 전년대비 236억원(5.1%) 증가 ▲기금은 7,872억원으로 전년대비 1,221억원(18.4%) 증가했다.

2018년 예산안 반영에서 지방교부세와 중앙보조금이 3조7,875억원으로 전년대비 3,030억원(8.7%)이 증가, 전체 예산의 73.9%이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7,292억에서 2018년 8,219억(증, 927, 12.7%) ↑, 중앙보조금은 전년도 2조7,554억에서 2018년 2조9,657억(증, 2,103, 7.6%) ↑이다. 또한 보전수입 등에서 2,729억원으로 전년대비 594억원(27.8%)이 증가, 전체예산의 5.3% 차지를 했다. 재정지립도는 18.1%로 자체수입 보다 이전수입의 증가율이 높아 전년대비 하락했다.

세입 여건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도 9,935억에서 2018년 1조670억(증, 735억, 7.4%) ↑이다. 전반적 경제여건은 수출 호조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상 등 내수 증감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2.5% (KDI 경제전망) 내외의 경제성장 전망이다.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세입 증가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정부추경시 교부세 조기배분으로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7,038억에서 2018년 8,001억(증, 963, 13.7%) ↑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도 254억에서 2018년 218억(감, 36, 14.2%) ↓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 복지지출 등에 확대다.

2018년 전북도 예산은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도 핵심과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기를 마련 ▲정부의 4대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세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생태계 구축 지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도 방문의 해, 전국체전, 2023 세계잼버리 등 국내외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2016년부터 보육업무의 큰 숙제로 남았던 누리과정 어린이 집 보육료가 도교육청과 협의해 570억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누리과정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했다. /김진성 기자

정부, 개성공단 기업 660억 추가 지원

남북 경협 기업 지원도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 기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금액 대비 지원율은 68%에서 74%로 올라가게 됐다. 또한 지난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규모는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을 합쳐 총 660억원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협 기업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피해액의 49%, 38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경협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실제조사부터 진행한다. /뉴시스



김승수 시장은 하루 전인 지난 8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주한지로 복본된 친서한 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바티칸 기록물, 전주한지로 새롭게 태어나다

세계 가톨릭 심장부인 바티칸 교황청이 소장중인 113년 전 교황황제가 교황에게 보낸 편지 기록물이 전주한지로 다시 태어나면서 전주한지 세계화 촉진은 물론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16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해봉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바티칸 비밀문서고 책임자인 장루이 브뤼게(Jean-Louis Brugues) 대주교에게 전주한지를 이용해 원본과 똑같이 만든 '교황황제와 바티칸 교황 간 친서' 복본본을 전달하고, 바티칸의 기록물로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주한지로 복본된 또 다른 친서한 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전주한지로 다시 태어난 '교황황제와 바티칸 교황 간 친서'는 교종

'교황황제와 교황 간 친서' 김승수 시장, 복본본 전달
황제가 1904년 교황 비오 10세의 즉위(1903년) 소식을 뒤늦게 듣고 이를 축하하며, 우리나라에 복을 빌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50여장으로 구성된 바티칸 비밀문서고에 잠들어 있던 이 문서는 지난해 이탈리아의 고문서 전문가에게 발견되면서 100여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시는 교황청과의 전주한지 복본 협의 및 비밀문서고 현지조사를 통해 소장중인 친서의 규격과 크기, 재질, 물성 등을 이미지로 구축, 전주전통한지에 인쇄하는 고문서 복본기술을 활용해 이 기록물의 전주한지 복본본을 제작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UN)전문기구인 유네스코와 전주

한지를 활용한 세계문화유산 보호에 나서기로 하는 LOI(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전주한지를 활용한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 △재외공관 한지 리모델링 사업 전개 등 한지의 세계화에 힘써왔다. 대표적으로, 전주한지는 올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인 '바이에른 막시밀리안 2세 책상'을 복원하는 데 활용됐다.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은 당시 전주한지가 접착력과 가벼움, 강도, 치수안정성, 상대적 투명도에서 굉장히 섬세해 문화재 복원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지를 생필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한지 생산이 지속가능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루브르박물관이나 바티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박물관들도 계속 전주한지를 활용한 이러한 협력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설립자분금 3조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설립자분금 최대 3조원에 달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된다. 지난 1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내년 6월을 목표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설립자분금은 최대 3조원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 가액 등을 감안한 규모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공포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활한 재원 확보와 자금조달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매립을 주도한다.

내년 6월 완료 예정
행정절차 간소화
부대수입 활발해질 듯

공사가 설립되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안들을 20년 동안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행정절차가 간소해졌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추후 부지매각과 부대수입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욱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 사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는 구조상의 문제였다. 내부 개발 사업을 민간이 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대규모 사업을 민간에서 진행하기는 힘들다. 공사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라도 방문의 해 개막
5면 - 도교육청 예산안 도의회 제출

축! 전주매일 창간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